

목록

20231010082358.....	1
20231010082415.....	3

그냥 아니라 왜?

이형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영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영을 기른 할아버지 한분이 기억이 나
있었다. 그때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의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수영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때나 그 수영을 이불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예기!

이 버릇없는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졌다.
왜냐하면 수영을 기른채 몇십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번도 그런공중을 지녀 본적이 없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수영을 꺼내 놓고 잤나, 넣고 잤나?

아무 생각해보도 안상관상 하거나 했다. 결국 할아버지
는 냉정한 얼굴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수 밖에 없었

다. "글쎄다. 히, 참. 이녀석 별별 다 물어봐서 정

궁궁하다면 많아, 오늘 밤에 한번자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불자리플 포개고 누웠다. 우선 이불 속에

수영을 넣고 말아야. 그런데 너무 갑갑하고 거북해서

하루라도 수영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 것 같았어.

‘용지! 수영을 밖으로 꺼내 놓고 장게 설명해!’
 할아버지는 어린 수영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가아 보았어. 그런데 불편한건 마장기라
 었어. 이불밖으로 내놓은 수영 때문에 한지
 러진하고 서늘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편
 지 않았잖아. 아무리 자려해도 잠을
 이룰수가 없었지. 수영을 이불로 덮어 감싸고,
 이불밖에 꺼내놓으면 러진하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영을 넣었다 꺼냈다
 하더라고 한숨도 잠수없었다,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실라고 했어
 아이와 약속도 지켜지 못했지. 이상한일
 아니? 분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영이고,
 할아버지는 몇십년 동안 하루도 비바짐없이 잠을
 잤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영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기억을 할수없잖아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물어볼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봐주고 한플 누가 가르쳐 줄수도 없는 말제
 장아 정말 감잡하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영때문에 편히
 잤수가 없었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웃어넘길일이 아냐.

카만히 생각해서 부정,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염이
 있는지 알아야. 아이들한테 무슨 수염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누가 질문할 때 가끔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적 있었잖아. 비단 그 '그냥' 이라는 말이
 너의 수염이란다. 아직도 잘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되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많은 말이야. 어떤 때는
 똥이오서 꼴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
 이 떠오르기도 아무 느낌없이 그냥 흘깃 보고 재쳐
 버리기도 하지. 새뜰이 어떻게 자라는 지어 알아
 가고, 구름이 어떻게 보였다가 흩어지는지 몇번
 이나 눈여겨 보았는지? 자신에게 깃도는 남들에게
 궁금한 일을 몇번이나 질문해 보았는지? 남 특이 흥내가
 그냥 따라하고 이쁜 말이 시키니까 그냥 했건 일은
 없나? 자기양에 모용필이 입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건전지를 넣고 단락을 누르면 그냥 복을 쳐대는
 곰인형과 병도 다르게 얹어. 아무 생각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새어나가는 사랑은 이야기속
 갈아버리지와 똑같아. 자기것이지만 자기것이 아닌
 수염을 갖고 있다가 많아야.

{그냥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느날 누가 '왜'
 '어떻게' 하고 무언가 아무래도 하기 싫어하.
 아무리 자기가 할일을 뒤돌아 보고 생각해 내어
 고 애써도 지나보 남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려
 서 혼자조차 뜻밖의 일이 많기 때문이지. 어느날엔가
 너한테도 누군가가 물어볼지 몰라. 그대를 위해서
 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
 해야겠지?